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곳 무재해 현장 양지 e-편한세상

대림산업 남양주 양지 e-편한세상 현장

한반도를 휘어 감고 있는 장마전선 때문인지 잔뜩 찌푸린 하늘을 가르고 내리는 빗줄기는 제법 굵다. 이 가운데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안전태세를 자랑하고 있는 철옹성!

바로 대림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양주 양지 e-편한세상(현장소장 최권중)”이다.

현재 공정을 25%로 무재해를 달리고 있는 이곳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에 버금가는 안전관리로 일등을 자랑한다.

용적율이 199%로 세대수에 비해 동수가 많고 대지 면적이 넓어 향후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반면 안전시공에 있어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여 일등의 안전현장을 이끌고 있는 이곳의 안전 세계로 들어가 본다.

불안전 행동 관리로 사고 Zero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서 비롯된다. 건설현장의 경우 매일 발생하는 신규근로자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50% 이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곳 현장에서는 신규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파리 한 마리의 출입까지 통제할 만큼 철저한 정문에서부터 신규근로자의 관리는 시작된다. 신규근로자들이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대, 보안경 등 기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곳을 통과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불안요소 검진을 마치고 바로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안전교육은 이 곳의 안전과장이 전담하여 강의식 교육을 마치고 현장 한쪽에 마련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는 체험이 끝나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한 안전교육은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하여 매번 9시를 넘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권중 소장은 “당장 안전교육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불평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생산성 향상에서 분명 도움이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들로 하여금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는 활동도 이곳 현장의 안전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동이나 협력업체에서 안전지적사항 발생 시 공사차장 지시하에 담당확인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조치여부를 확인·유지하는 시스템이 그 중 하나이며, 위험성평가, 지적확인 활동, 합동점검 등도 관리감독자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

이처럼 철저한 신규근로자 관리와 관리감독자의 능동적인 안전활동으로 사고의 Zero화는 준공 그날 까지 이어질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은 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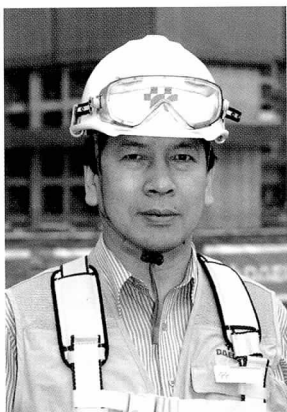
건설현장은 위험요소가 많다. 그 만큼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 입장에서 볼 때 사고는 단 한건으로 끝날지 모르나 개인으로 보서는 가정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길로 현장에서의 안전을 첫 번째로 꼽는다. “현장의 핵심 근로자를 유지시키기 위해 안전은 필연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최권중 소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의 최우선은 공정의 위험이 많았던 지하 주차장 골조공사 중 형틀작업 및 해체작업과 갱폼인상작업에서도 이루어져 무재해로 끝났다.

긍정적 사고로 능동적 안전활동

항상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일해 줄 것을 최권중 소장은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당부한다. 피동적이면 일을 힘들어해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긍정적이면 일 자체가 재미 있어지고, 일이 창조적이면서 안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



▲ 최 권 중 현장소장

“우리가 이 현장을
떠나도 명품의
최고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

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최권중 소장이 당부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는 강압적이지 않은 감성안전이 중심에 있다.

요즘 같이 더운날 현장에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항상 체크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최고의 안전시설, 최고의 안전통로, 깨끗한 주변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현장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반드시 무재해 준공도 이룰 것이라 믿는다.

무재해는 준공 그날까지

지속적인 갱폼안전관리, 직원안전의식 강화·유지 및 위험성평가활동 강화, 정리정돈 및 근로자 이동 동선확보, 감성안전관리활동 도입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오늘과 같은 장마철에는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의 접근금지, 전선관리를 통한 감전사고 봉쇄, 앞으로 다가올 혹서기에 근로자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순찰강화 및 지정휴게실 운영 등 계절적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으로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의지는 지속되어 최권중 소장의 바램처럼 웃음이 있는 현장,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는 현장, 부드러운 현장, 명품아파트를 지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이 되는데 안전은 항상 그곳에 있길 바란다.



〈최종덕 기자〉